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음 4월 10일) 제 15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사랑, 결코 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인 '제86회 춘향제'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남원의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벌이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1면·12면>

## '프랑스 문화 매력에 흠뻑'

전주 프랑스위크 행사 성료

전주시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전주시민들에게 프랑스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전주 프랑스위크' 행사가 열흘간의 성대한 막을 내렸다.

전주 프랑스 위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프랑스동화여행, 프랑스감성교육' 행사가 13일 전북혁신도시 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북개발공사)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주혁신도시 주민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전주시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숙명여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이자 유명방송인인 이다도시 씨가 강사로 초청돼 프랑스식 감성교육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다도시 교수는 1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비운오리새끼' 동화책과 영상이 함께하는 동화구연을 진행했다. 이 동화는 이다도시 교수가 직접 선정한 동화로, 아이들에게 타인과 다른 모습을 가진 '비운오리새끼'처럼 차별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다문화와 장애아,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부 순서로 전주시 학부모를 위한 '프랑스의 감성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됐다.

프랑스의 감성교육법은 최근 국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트랜드한 교육법으로 알려진 교육방식으로, 전주시 학부모들에게 해외의 교육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이번 강연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한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북 콘서트로, 이다도시 교수 특유의 재치 있는 화법과 통통 튀는 목소리로 전북개발공사 대강당이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 프랑스 위크가 이다도시와 함께하는 프랑스 동화여행, 감성교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들에게 주한대사관, 문화원 및 혁신도시이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더욱 많은 국제교류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여 그 어느 도시보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글로벌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탄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앞'

19대 국회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으로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탄소산업의 도약기로 삼고 약 5,085억원 규모의 '베가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게다가 전북도는 올해 초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 60여명의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도는 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 등 탄소소재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4대 탄소소재 최강

여야간 협상 실패로 발목 잡히는 상황 속 여야 3당 도내 의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 통과 가능성 높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기업유치 240개, 매출 10조원, 고용유발 3만 5,000명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소법이 여야간 쟁점안 협상 실패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19대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 탄소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 등도 덩달아 늦어져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발전을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소속이 서로 다른 당의 도내 국회의원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15일 여야 3당 원내 수석대표가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탄소법 등 폐기 직접 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을 키

우지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탄소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탄소 소재 융복합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탄소 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돼 탄소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편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신광영 기자

## '20대 국회서 교과서 국정화 중단시킬 것'

국민의당 "스승의 권리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

국민의당이 15일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시켜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스승의 날 논평에서 "작년 한해 우리 사회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스승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인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스승은 임금과 부모와 같이 공경하려 했지만 갈수록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돼가는 현실에서 스승이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 배꼽빼는 각설이들의 신명나는 무대 본사 주최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 대성황

'제3회 전주 한옥마을 전국 품바 명인전'이 13일 오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1,000여명의 전주시민 및 관광객이 자리한 가운데 격조 높은 공연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16면>

이날 공연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김명지 전주시의회 부의장, 조봉성 전주매일신문 대표, 최은희 전북도의원, 김남규 전주시의원과 김승정 전주시의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연은 전국구 품바 중에서도 거르고 걸려 초창된 이설이, 최민, 서봉구, 유달산, 서봉식 등 5명의 품바명인들이 차례로 나서 신명나는 노래와 화려한 춤, 익살스러운 농담으로 관객들의

1000여명 모인 가운데 명인들의 열띤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흥겨움 안겨줘

흥겨움을 더해 모두가 하나 된 무대를 만들었다.

품바 명인들의 공연 중간에는 공중파에서 활약하는 정해진, 김다나, 진국이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진정아, 박인경 등 우리 고장 가수들의 특별무대가 펼쳐져 품바 공연 못지않은 환호를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국내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이삭 한옥마을에서 열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품바가 하나로 어우러져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품바 명인전을 관람한 강태호(26·정읍) 씨는 "전주 한옥마을이 워낙 먹을거리로 유명해 식도락 여행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공연을 봐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한옥마을에서 이런 전통문화 공연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년 연속 대표브랜드 대상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真心 홍삼주

www.jinansam.com 063)433-9767